



보도일시	2021. 7. 30(금) 16:30 (회의 종료 후) 사용	배포일시	2021. 7. 30(금) 10:00 배포
비고	* 모두말씀 별도배포		
담당부서	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	담당자	기획총괄부장 고관규, 서기관 최두영 (02-2100-2034)

김부겸 국무총리,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주재 완벽한 테러 예방으로 위협요소 사전 제거! 빈틈없는 최상의 테러 대비태세 유지 당부

- ◆ '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': 선제적 예방, 총력 대응 위한 9개 중점과제
- ◆ 대규모 테러 발생 예방을 위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대책
- ◆ 국내외 테러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軍 대테러협력체계 강화 추진
- ◆ 해외직구 증가로 인한 총기류 등 테러물품 해외유입 차단 대책

- 정부는 7월 30일(금) 오후 3시 30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13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*를 개최했습니다.
 - * 「테러방지법」 제5조에 의거 구성·운영, 위원(대테러 관계기관의 장 20명)
- 오늘 회의에서는 「국내외 테러 정세 평가」를 반영한 「2021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」을 심의·의결하였으며
 - 「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강화 대책」, 「軍 대테러협력체계 강화 방안」, 「테러물품 해외유입 차단대책」 등을 토의하였습니다.
- 김 총리는 완벽한 테러예방과 신속한 대응체제 준비를 통한 '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' 유지가 정부의 최우선적 과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빈틈없는 테러대비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① 2021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 (심의·의결)

< 상반기 성과 >

- 국제테러정세 악화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총포 등 위험물품 5만 5천여건을 적발·처리하는 등 테러위해 요소를 제거하였고
- 또한, 다중이용시설 안전진단을 통해 취약점을 보완하고 철도,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.
- 한편, 드론테러 예방을 위해 공항 등 국가 중요시설에 안티드론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, 대테러장비 확충 등 전담조직의 역량을 보강하였습니다.

< 하반기 정세전망 >

- (국제) ‘코로나19’ 영향 등으로 상반기 전 세계 테러 발생 건수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
 - 9.11 테러 20주년과 빈 라덴 사살 10주년 계기 보복테러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인종 차별 극우세력에 의한 테러 및 증오범죄도 우려됩니다.
- (국내) 국내 일부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자금조달·지원 등 개별적 테러지원 행위가 지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
 - 코로나 백신 접종률 증가로 각국의 방역조치가 완화될 경우 테러연계 불순세력이 일반 외국인들과 섞여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
 - 계층간 갈등이나 개인 원한 등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에 불만을 품은 인물들에 의한 테러나 모방범죄 가능성도 우려됩니다.

< 하반기 추진계획 >

- 정부는 테러 위해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처하면서 유사시에는 총력 대응하기 위해 아래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
- ① 테러위협인물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, 총기 등 테러 이용수단의 국내 반입과 불법 유통 차단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.
- ② 해외 대테러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위협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.
- ③ 해적피해 예방대책 보강 등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·매뉴얼 정비와 함께 AI·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테러위험요인 사전탐지·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- ④ 테러정보협의회·화생방테러대응협의체 등 대책기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전문역량을 보강하고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·시행하겠습니다.
- ⑤ 경찰특공대 추가창설(충남·전남) 및 소방청 화생방 전문인력 충원 등 관계기관 조직·인력을 보강하고 대테러장비도 확충하겠습니다.
- ⑥ 국내외 개최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여행객 대상 위험정보 적시 제공 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.
- ⑦ 국가대테러종합훈련, 대테러전담조직 합동훈련 등을 통해 대테러 합동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여 유사시 국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.
- ⑧ UN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고 테러 상황시 행동요령과 허위 테러위협 예방 등 대국민 홍보영상을 지속 제작·송출하겠습니다.
- ⑨ 국가중요시설 드론탐지·차단 장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국내 안티드론 기술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

②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강화 추진 (보고)

- 질병관리청, 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보톡스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 보유기관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, 허위 분리신고, 미승인 실험 등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보안관리가 미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- 이에 따라,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, 균주제출 의무화, 유전자 DB 구축 등 예방관리체계를 조속히 보완하여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

③ 軍 국내외 대테러 협력체계 강화 추진 (보고)

- 국방부는 軍이 보유하고 있는 대테러 역량을 관계기관에 적시 지원 하고,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대테러 통합 작전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우방국 연합 대테러훈련 등 해외 대테러협력을 강화하면서 해외 에서 대규모 위난사태 발생시 긴급수송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지원 준비태세를 유지키로 하였습니다.

④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류 등 테러물품 차단 대책 (보고)

- 코로나-19 상황으로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특송, 우편을 통한 해외 직구 화물이 폭증하면서 이에 편승하여 총기류 등의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
- 이와 관련 관세청은 신기술 적용 X-Ray 개발, 고위험화물 모니터링 강화, 현장직원 적발역량 제고 등을 통해 총기류 등 테러악용 위험이 있는 물품의 국내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.